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응급 처치 요령(1)

1. 응급 환자 신고 방법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인근의 의료 기관(병·의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상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급 의료 체계(전화 119)로 연락을 취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1) 응급 환자 신고 시 반드시 전달해야 할 사항

- ①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 번호
- ② 환자 상태와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위
- ③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 화재, 사고, 위험 물질 등
- ④ 환자의 수

2) 증상이 경미해도 반드시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 ① 기침 시 혹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 ② 소량이라도 피를 토하는 경우
- ③ 가슴에 갑자기 통증을 느낀 경우
- ④ 잠시라도 의식을 잃었던 경우
- ⑤ 신체에 마비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경우

2.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일반인이 취해야 할 조처

응급 의료 체계로 연락을 취한 다음에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직접 필요한 응급 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단 자신의 추측에 의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응급 처치를 시행한다면 오히려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 일반인이 취해야 할 응급 처치

- ① 기도유지 : 무호흡이거나 불규칙한 경우에 시행
- ② 인공 호흡 : 호흡이 없는 경우에만 시행
- ③ 지혈 : 외부 출혈이 심한 경우에만 압박 지혈법을 이용
- ④ 기타 : 응급 의료 체계(전화 119) 전화 상담원이 제시하는 처치법

2) 구급차 도착 전, 환자를 옮겨야 하는 경우

- ① 위험한 주위환경 : 화재, 건물 붕괴, 침수 등
- ② 주위에 위험 물질이 있는 경우 : 유독가스, 발화성 물질 등

3. 기도의 폐쇄시, 나타나는 증상과 기도 확보 방법

기도(氣道)란 사람이 호흡을 할 때에 외부의 공기가 폐(허파)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통로를 가리킨다. 기도가 막히면 혈액으로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4분

제대로 알자 1

● 상태가 위중한 환자는 보호자가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응급 의료 체계(전화119)로 도움을 요청하여 구급차로 이송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보호자가 직접 중증의 응급 환자를 자가용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

- ① 차량의 공간이 좁아서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특히 외상 환자의 경우)
- ② 이송하는 동안에 응급 처치를 시행할 수 없으므로 상태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 ③ 보호자들은 전문 의료 기관을 정확히 선정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전문적인 응급 처치가 지연될 수 있다.

● 가벼운 상태라도 종합병원 응급실로 즉시 가는 것이 안전한가?

물론 안전할 수도 있지만 인근 중소 병원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대형 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는 한정된 인력(의사와 간호사)으로 수많은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므로, 경증 환자는 중증의 응급 환자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제대로 알자 2

● 기도가 폐쇄되었을 때 등을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가?

유아(1세 이하)를 제외하고는 등을 두드리기는 것은 나쁘다. 등을 두드리게 되면 기도 안에 있는 이물질이 오히려 기도의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입안에서 이물질이 보이면 즉시 손가락으로 꺼내는 것이 좋은가?

손가락 끝으로 이물질을 잡으려고 하다가는 자칫 이물질을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으므로 손가락을 입안의 측면으로 깊숙히 넣은 다음에 밖으로 훑어 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내에 의식을 잃으며, 4분이 경과되면 뇌 조직이 손상되고 10분이 경과하면 사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4분 이내에 신속한 응급 처치가 시행되어야만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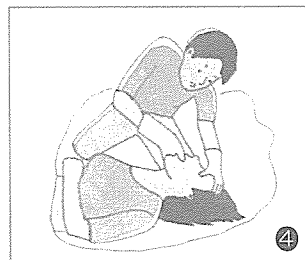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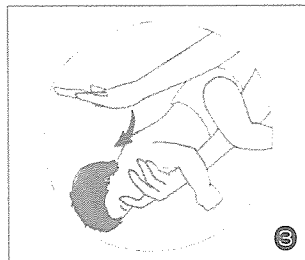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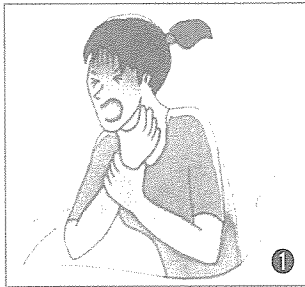
1)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도가 막히는 경우(기도 폐쇄)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

- ① 어린이나 노인 : 이물질(사탕·고기·땅콩 등)을 삼키다가 기도가 막히는 경우
- ② 외상·사고 : 입안이 손상되어 부러진 치아나 출혈 등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
- ③ 의식이 없는 경우 : 혀가 뒤로 말리거나, 또는 구토물에 의해 막히는 경우

2) 기도가 폐쇄될 때 나타나는 증상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쪽 손으로 목을 쥐는 '브이-사인(v-sign)'이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관찰된다(그림1). 또한 기도가 일부분 막히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침을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으며, 매우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나타내지만 청색증은 나타나지 않는다.



3)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기도 폐쇄에 대한 처치 중 복부를 두 손으로 밀어 올려서 이물질을 제거시키는 하임리히법(그림2)이 있으나, 이 방법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전문 의료인이 시행하는 처치로서 일반인이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필요한 응급 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① 호흡 상태가 정상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응급 의료 체계(전화 119)로 연락한다.

② 1세 이하 혹은 2세라도 체중이 10kg 이하인 환자에게서 기도가 폐쇄된 증상이 관찰되면 환자의 얼굴이 위로 향하도록 환자를 자신의 팔 위에 올려 놓고 손으로는 환자의 머리와 경부가 고정되도록 잡는다. 다음에는 다른 팔을 이용해 환자의 얼굴이 아래로 향하도록 뒤집어서(들려서) 턱을 잡은 손이 환자를 떠받치면서 다른 쪽 손으로 환자의 견갑골(어깨뼈) 사이의 등을 5회 정도 연속해서 두드린다(그림3). **㉗**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생활 이렇게 하자' 에서 발췌〉